

호심복지 일번지 위상 강화

임실군,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 10억원 증가34억원 확대 · 일자리 299개 증가

임실군이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대폭 확대·시행하면서 '호심복지 일번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민선 6기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주도했던 일자리 정책을 민선 7기에 더욱 활발하게 전개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2019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 보다 13%(10억원) 증가한 34억원으로 확대하고, 시행시기도 앞당겨 추진한다. 일자리 전달기관인 임실시니어클럽과 일자리 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임실군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실군이 '호심복지 일번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나섰다

어르신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적은 활동비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십시일반 장학금을 모아 매년 3~4백만원을 전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갈수록 심화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완료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목욕쿠폰 지급 등 다양한 호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여기에 취약계층 지원 임실사랑 상품권 지급과 맞춤형 서비스 급여 제공,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 등도

함께 추진한다. 민선 7기 대표공약으로서 질병에 취약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전개, 의료서비스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의료 생활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 민 군수는 "농촌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와 의료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노령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새해 주요업무 힘찬 시동 건다

순창군이 2019년 한해를 시작하는 새해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연초부터 업무행기기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 1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와 전체 실과소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각종 현안에 대한 주문을 이어갔다.

고등학생 해외역사문화탐방비 지원 사업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대학진학 축하금과 같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적극 홍보하여 인재육외에도 우리지역 학생들이 순창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부



순창군이 새해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줄 것을 주문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자리한 행복장터에 순창의 겨울채소를 판매

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부서별로 심도있는 주문이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돈 버는 농업실현 지원강화

남원시는 원예산업 고품질 육성을 통한 시설원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실질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19년 원예분야 농업인 지원사업을 1월 중순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발빠른 농업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원하는 주요사업은 시설원에 생산 기반 확충분야에 비가립하우스 설치,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스마트 팜 등 시설하우스 지원과 고품질 생산 시설장비 지원에 에너지이용효율화, 원예용 증형관정 등을 지원한다. 품질고급화를 위해 시설원예현대화, 원

예작물 고품질 생산지원, 시설원에 고설재배, 차광광설치 지원 등 총 16개 분야에 82억 원의 사업이 투입된다.

원예산업 과정은 "FTA 체결과 시장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생산과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겨울철 주민복지사업으로 두레사랑방이 주민들의 운영되고 있다.

두레사랑방 운영 '활발'

남원시, 겨울철 주민복지 사업 일환

남원시가 겨울철 주민복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레사랑방이 주민들의 호응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두레사랑방은 동절기 5개월 동안(1.2.3월, 11.12월) 경로당에서 24시간 공동생활 할 수 있어 고독사 등 독거노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읍·면·동에 소개하고 있는 경로당 23개소를 선정하여 두레사랑방을 시범 운영했으며, 독거노인과 주민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만족도가 96%로 높게 나와 올해는 85개소로 늘려 행복이 가득한 두레사랑

방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두레사랑방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설문조사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밥도 해먹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을 뿐 아니라 집에 혼자 있으면 난방비를 아끼려 춥게 지내는데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 좋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로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두레사랑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주민과의 소통 강화 최우선

황숙주 순창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군은 14일 직성면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황 군수가 읍면을 직접 찾아 군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읍면 현장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초방문은 15일에는 금과면과 풍산면, 16일 복흥면과 쌍치면, 17일 인계면과 구림면, 18일 팔덕면, 21일 동계면, 22일에는 순창읍과 유등면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방문은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새해 군정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해인사와 군정설명, 의견청취 등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황숙주 군수가 군정발전에 공이 큰 주민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해 관심을 모았다.

또 분회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인사와 더불어 건

강도 기원하면서 군민과 격 없는 대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 군수는 특히 올해 방문은 주민 건의사항과 의견 청취에 무게를 두고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군민을 위한 방문이 되는 데 힘을 쏟았다는 후문이다.

연초방문을 주관한 행정과에서도 최대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사전에 독려했음은 물론, 형식적 방문이 아닌 실질적 방문으로 군민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힌 바 있다.

황숙주 군수는 "현장을 방문하면 항상 군정방향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 받아 참 신선하다"면서 "단순 생색대기식 현장방문이 아닌 군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도록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읍면 방문시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보건소, 무료 노인복지 사업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의치(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 비용을 28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을 회복시켜 자신감 형성과 영양공급에 기여하고자 의치(틀니)가 필요한 대상자를 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읍 면 지역은 관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면사무소, 동 지역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받아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중 사업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협력 17개 치과외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과거 노인복지(틀니)사업 무료시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편익만 시술받은 경우에는 반대편 편익은 신청 가능하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 시술대상자 중 기존에 시술한 의치(틀니)가 헐거워 지거나 의치 치아 탈락 등 손상된 경우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과 방문보건담당(620-7957~795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순례 보건소장은 "무료 노인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강건강기능을 향상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민의 날 · 순창장류축제 확정

순창군이 올해 제57회를 맞는 순창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4월 19일, 제14회 순창장류축제는 10월 18~20일, 3일간으로 확정 발표했다.

순창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4월 19일 순창읍 일품공원 일원에서 개최기로 했으며 4월 20~21일, 2일간 개최 예정인 제57회 순창군민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군민의 날은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읍 면민의 날과 중복되지 않도록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주요행사로 군민기원제, 축동행렬, 풍물한마당, 목전출다리기 등 대동 프로그램과 자랑스런 군민에 대한 시상식, 축하공연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특히 장류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소스바람회도 축제기간 중에 운영해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순창만이 가진 차별화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